

Digital Currency 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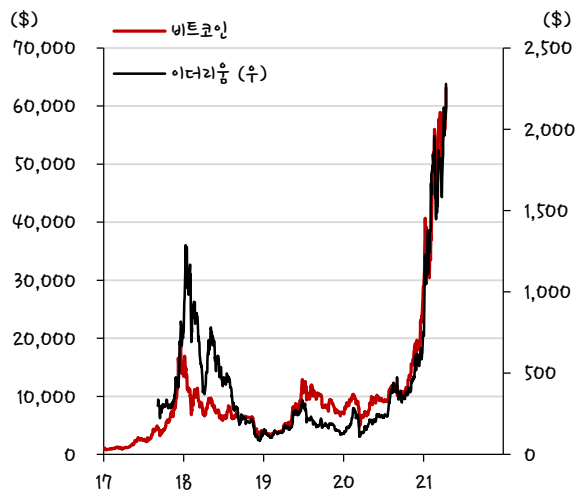


주식전략/시황.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co.kr

2021/0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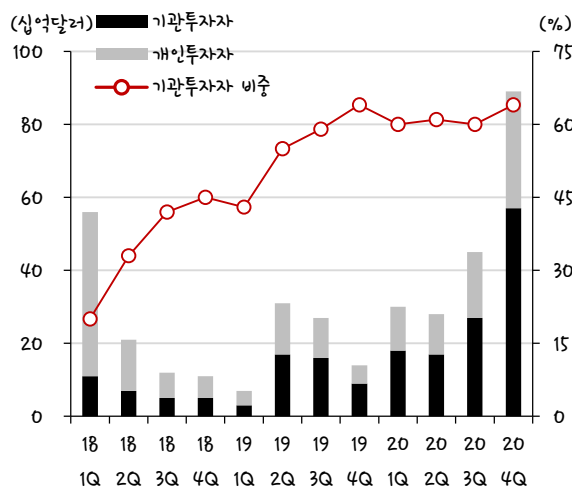
“비트코인 지금 사도 늦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 중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료: REFINITIV, SK 증권

상장 예정인 코인베이스는 이미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거래소다



자료: Coinbase, SK 증권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작년 10 월 이후, 5 배 이상 상승했으니, 가히 기념비적인 상승률이다. 세미나와 강연을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 사도 늦지 않나요?” 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늘 “네”였다. 단,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지난 몇 번의 보고서를 통해 언급했던 내용을 재인용할 필요 없이 파일 연준의장이 지난 BIS 금융혁신 컨퍼런스에서 직접 언급했다. 테슬라 등 글로벌 굴지 기업들의 도입과 ETF 등 금융상품 출시가 임박했고, 당분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플랫폼이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NFT, 디파이(DeFi)는 모두 이더리움 기반이다.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NFT 의 수혜주를 찾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정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스테이블코인도 이더리움 기반이다. 수수료(가스비)와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단점이지만, 올해 4 월과 7 월의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될 것이다.

보고서를 통해 밝히긴 어렵지만, 다른 알트코인 중에서도 분명 좋은 프로젝트도 있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들도 있다. 하지만 다른나라와 달리 국내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치고 제일 많은 것은 분명 우려스럽다. 백서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없이 싸기 때문에 사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규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코인베이스 상장이 답을 주었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고(64%), 씨클(Circle)과 합작해 스테이블코인 USDC 를 발행한다. 이번 상장은 규제를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금지가 아닌, 제도화를 통한 산업 육성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즉, 현재의 상황은 너무 좋다. 단, 광풍에 휩쓸린 문지마 투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